

# 성보 해외반출 논란, 보호장치 마련된다

### 문화재청, 8월 13일 보호제도 마련 방침 밝혀 공인전시 복제품제도(가칭) 법령·규정 제정 국외전시 반출허가 관련 전문가 검토·공청회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사신)의 해외반출 허가로 불교계를 비롯한 안팎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8월 13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방침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진행하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전시에 신라시대 국보를 내보내는 문제로 혼란을 겪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29일 반가사유상을 비롯한 국보 3점에 국외반출 불가 결정을 내렸으나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재 반출을 요구함에 따라 반가사유상의 국외반출을 허용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번 반가사유상의 해외반출에 대해 "미국박물관의 입장과 정치적 판단이 문화재 관리 담당부처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뒤집은 것"이라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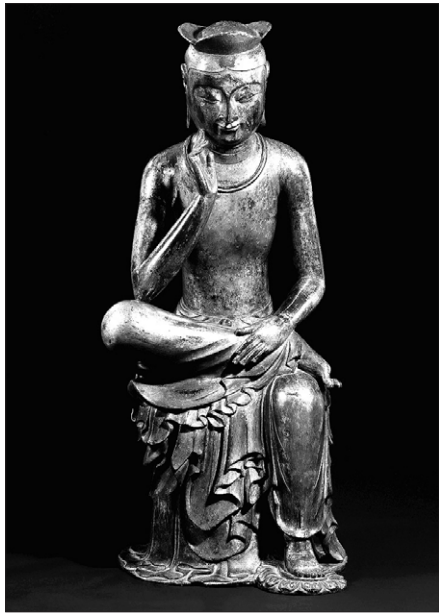
그동안 성보문화재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훼손 가능성을 들은 반대 입장과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 한다는 찬성 입

장이 공존해왔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훼손 가능성과 성보의 신앙적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성보문화재를 쉽게 전시하는 일은 국격(國格)을 낮추는 것으로 존경의 대상인 성상이 구경거리로 전락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전시를 반대하기도 했다.

김창겸 한국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성보문화재를 철저히 보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 한다는 주장 둘 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소중한 문화재를 무조건 해외로 내몰릴 수는 없다.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역사성과 문화 예술적 가치가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문화재청은 8월 13일 향후 국외전시에서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가칭)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훼손되면 대체가 불가능한 중요



문화재의 경우 충분한 연구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복제품을 제작·반출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공인복제품 문화재 선정과 제작 기준, 품질에 대한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외반출 허수가 잦은 문화재는 허가를 제한하고 문화재 특성에 따라 국외전시 기간을 제한할 계획이다. 가령 이번에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전시되는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의 경우 총 8회에 걸쳐 약 3000일간 국외에 반출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재 별로 기준을 마련해 반출 일수 제한 등 훼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국외반출 허가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객관적인 국외반출 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군이 전시가 필요하다면 훼손 가능성이 높거나 반출 빈도가 높은 문화재의 경우 원본을 대신한 복제품을 만들어 보내야 한다"며 "성보문화재 원본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고, 사찰을 찾는 노력이 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반출된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2900여 일(약 8년) 동안 해외에 나가 훼손위험에 노출된 바 있다. 당초 문화재청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여러 국외 박물관을 순회하면서 많은 물질적 피로를 가지게 돼 절대적인 안정상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외반출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하여 해외 반출이 결정됐다.

## 학술·문화재소식

### '국내 유일 목조탑' 법주사 팔상전 부분 복원

국보 제55호 법주사 팔상전(法住寺 捌相殿)이 부분 해체 복원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8월 15일 다음 달까지 6억 2000만원을 들여 법주사 팔상전 5층 지붕 일부와 그 위에 얹혀있는 상륜부(相輪部)를 뜯어내 구조재 등을 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분 해체 복원에서는 심하게 색이 바래고 손상된 외부단청도 전면 보수된다.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목조탑인 법주사 팔상전은 5층 형태로 높이는 22.7m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다시 지었으며, 1968년 한 차례 전면 해체 복원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상륜부에서 기우는 현상이 발견돼 누수 등에 따른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불전 전체에 덧칠을 씌운 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일반인 관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신라왕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래했다?

화려한 문양과 세련된 세공기법으로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로 꼽히는 신라 금관의 기원이 현재 아프가니스탄 지역인 대월지(大月氏)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웨이징 교수(韋正)·팡샤오옌(方笑天) 베이징대학교 고고문화학원 교수는 8월 15일 중국 시안(西安) 섬서사범대학에서 열린 제2회 국제학술회의 '고대 동아시아 불교문화교류와 실크로드'에서 '신라 보요관의 재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웨이징 교수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의 문화와 현재 아프가니스탄 일대 펼쳐진 대월지의 쿠산제국 문화가 실크로드를 거쳐 동쪽으로 전파됐으며 그 증거로 신라 금관을 꼽았다.

웨이징 교수는 아프가니스탄 시바르칸에서 출토된 보요관과 신라 보요식 금관이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꼽았다.

그는 "신라 경내에서 발견된 금(金)보요관의 연대는 5세기로 유행시기는 6세기"라며 "당시 연(燕)나라에서는 보요관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 수원 봉녕사 역사·문화 조명 세미나

수원 봉녕사는 9월 2일 오전 10시 봉녕사 소요삼장 1층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봉녕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선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전·근대기 봉녕사 역사의 변천과정과 관련 고승' △김상영 중

앙승가대 교수의 '봉녕사의 근현대 역사와 사격' △정성권 동국대 교수의 '봉녕사의 성보문화유산과 그 가치'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의 '봉녕사 가람배치의 특성과 정비방안'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개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9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6주간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불교학술원 전용강의실에서 불교한문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한다.

한문아카데미에선 월요일 금강선원장 허거 스님의 '원각경', 화요일 양산석 서

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의 '조선서', 수요일 박해당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연구원의 '조선', 목요일 이상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의 '고문진보', 금요일 공근식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의 '논어·대학' 등이 진행된다. (02)6713-5154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학 67집 원고모집

(사)한국불교학회(학회장 김용표)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학회지 《한국불교학》 제67집 게재 원고를 모집한다. 《한국불교학》 게재원고는 불교교학·불교사학·응용불교 등 3개분과로 8월 30일까지 원고를 모집한다.

응모원고는 논문심사비 및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투고 자격이 주어지며, 원고 모집규정과 심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 “봉은사 수륙재 연원 재 조명해야”

#### 탁효정 연구원, '2013 수륙재의 향연 학술세미나' 서 주장

“봉은사는 전신인 견성사 시절부터 수륙재가 선행했습니다. 수륙재 관련 자료가 봉은사에서 발견됐으며 임진왜란 등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수륙재가 1930년까지 선행됐다. 봉은사의 수륙재에 대한 연원 조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능찰이자 선종 수사찰 역할을 담당한 봉은사에서 진행된 수륙재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눈길을 끈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8월 14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2013년도 수륙재의 향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교부장 송목 스님, 포교연구실장 범상 스님,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을 비롯해 진관사와 삼화사 등 수륙재 관련 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발제를 한 탁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은 "봉은사의 기원과 수륙재의 선행"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왕실능

찰로서의 봉은사와 수륙재의 관계를 조명했다.

탁 연구원은 "봉은사의 전신인 견성사는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원당으로 중창한 사찰로 이 때부터 수륙재가 행해졌다. 연산군에서 명종대에 이르러서는 선정릉의 능

**왕실·국행 수륙재 중심 사찰**  
〈수륙무차평등제의활요〉 중요자료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기조 발제**  
수륙재 근원은 수행법서 시작

침사찰로 지정되면서 왕들을 위한 수륙재, 즉 왕실차원의 수륙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탁 연구원은 이날 현재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에 소장돼있는 보물 제1105호 〈수륙무차평등제의활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가 봉은사와 수륙재의 관계를 밝히

는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했다.

탁 연구원은 "수륙무차평등제의활요"는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아들 영순군에게 필사하게 해 견성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라며 "봉은사가 수륙재 선행 뿐만 아니라 자료 발견에도 나선 것을 밝히는 자료"라고 말했다. 탁 연구원은 이어 "조선 후기에 봉은사는 순회사자의 원당으로 역할하면서 왕실의 수륙재 도량으로 유지됐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남한산성에서 전사한 희생자들을 위한 국행수륙 도량의 역할도 했다"며 봉은사가 수륙재 중심사찰임을 강조했다.

탁 연구원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관사·삼화사 수륙재와 비교해 "삼화사 상원사 진관사 등의 수륙재가 새 왕조의 구성원들을 규합하기 위한 국가제전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봉은사 수륙재는 왕실구성원의 천도제의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수륙재 불교 문화콘텐츠로 활용을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동국대 홍윤식 명예교수는 "수륙재의 연원과 구조적 의미" 주제에서 수륙재의 근원이 수행법서에서 시작해 대규모 대중 의례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홍윤식 명예 교수 탁효정 연구원

홍 교수는 "수륙재의 시작은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존자가 아귀에게 시은을 베푸는 시아귀회(施餓鬼會)로 본다 수행법이었으나 후일 영혼 천도예례를 수용하여 수륙재라는 하는 대규모 의례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2 발제에서 윤소희 동국대 불교대 박사는 "수륙재의 문화콘텐츠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티베트 드레퓌 사원과 라브랑스 사원 등 외국 불교의례를 설명하며 수륙재도 문화콘텐츠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제3 발제를 한 이성운 박사는 "전통문화 수륙재 복원을 위한 고찰" 발표에서 "국가 제례의 성격으로 행해진 과거의 수륙재와 달리 현재는 국가제례와 국가종교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에 맞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역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http://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선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들을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3년 9월 3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님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안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 법패·작법무-**  
**불교예술대학**

◆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http://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